

2023. 3

---

**2022년 청양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



**청 양 군 의 회**

# 목 차

## I. 출장 개요

- 1. 출장개요 ..... 2
- 2. 출장일정 ..... 2
- 3. 출장자명단 ..... 3

## II. 출장국가 개요

- III. 출장후기..... 7

- IV. 출장을 마치면서 ..... 18

# 2022년 청양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 ◆ 싱가포르 주요시설 견학을 통해 우수 사례 벤치마킹 및 활용방안 모색
- ◆ 다양한 국제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우리군 여건에 맞는 우수시책 발굴

## I. 출 장 개 요

### □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22. 12. 14(수) ~ 12. 18(일), 3박 5일
- 출 장 국 : 싱가포르
- 대 상 자 : 12명(의원 7명, 공무원 5명)
- 주 관 : 청양군의회
- 출장내용 : 선진적인 발전을 위한 우수 사례 벤치마킹 및 활용방안 모색
  - 국회 방문으로 타 국가 정치제도 이해(의정 마인드 제고)
  - 체류 및 체험형 관광 자원, 서비스 행태 파악 등
  -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계획 사례 파악 등

### □ 출장일정

- 12. 14(수) : 인천공항 → 싱가포르창이국제공항 도착
- 12. 15(목) : 싱가포르 국회 → 내셔널갤러리 싱가포르 → 가든스 바이 더베이
- 12. 16(금) : 주룽새공원 → 디스커버리센터
- 12. 17(토) : URA(도시개발청) 시티 갤러리 → 현대화 재래시장
- 12. 18(일) : 싱가포르창이국제공항 → 인천공항

□ 출장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고
		한 글	영 어		
청양군의회	의 장	차미숙	CHA-MISOOK	여	
	부의회장	이경우	LEE-GYEONGWOO	남	
	운영위원장	윤일묵	YUN-ILMUG	남	
	의 원	김기준	KIM-GIJUN	남	
	의 원	임상기	IM-SANGGI	남	
	의 원	이봉규	LEE-BONGKYU	남	
	의 원	정혜선	JUNG-HYESUN	여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SIM KEE SANG	남	
	의사팀장	최재천	CHOI JAE CHUN	남	
	주 무 관	진승희	JIN SEUNG HEE	남	
	주 무 관	강동균	KANG DONG GYUN	남	
	주 무 관	노성래	ROH SEONG RAE	남	

## II. 출장국가 개요

### 싱가포르[SINGAPORE]



- ▶ 언 어 :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 ▶ 면 적 : 728.5km<sup>2</sup>(청양군 479.1km<sup>2</sup>)
- ▶ 인 구 : 약 597만명
- ▶ 수 도 : 싱가포르(Singapore)
- ▶ 주요민족 :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기타
- ▶ 종 교 : 불교, 이슬람교, 도교, 힌두교, 카톨릭, 기독교 등
- ▶ 화폐단위 : 싱가포르 달러(S\$)
- ▶ 국민총소득 : 1인당 6만4천달러 (2021년 말 기준 세계 7위)
- ※ 대한민국 : 1인당 3만5천달러(세계 23위)
- ▶ 시차는 한국보다 1시간 정도 늦음

### □ 명 칭

정식 국가 명칭은 싱가포르 공화국(The Republic of Singapore)이다. 국가 형태는 공화국이고 정부 형태는 대통령 직선제하의 의원내각제로 단원제의회를 채택하고 있다.

## □ 역 사

싱가포르 초기 역사 기록은 3세기경 중국 문헌을 보면 “반도 끝에 있는 섬”이라는 뜻의 푸루오충(Pu-luo-chung)으로 싱가포르를 부르고 있다.

싱가포르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가 19세기인데, 바로 이때 지금의 싱가포르가 세워졌다. 당시 싱가포르는 이미 말라카 해협의 떠오르는 교역소였고, 1832년, 싱가포르는 페낭(Penang), 말라카(Malacca), 싱가포르로 구성된 해협식민지(Straits Settlements)의 중심지가 되었다.

1869년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고 전신과 증기선이 도래하면서, 싱가포르는 동서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싱가포르 인구는 주로 중국인, 인도인, 말레이인 이었다. 하지만 평화와 번성을 누리던 싱가포르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일본비행단의 공격으로 타격을 입었고 이후 3년반 동안 일본인의 점령에 가혹한 억압과 엄청난 인명 손실이 있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자 영국 군정에 넘겨졌고, 페낭, 멜라카, 싱가포르로 구성된 해협식민지가 해체될 때까지 지속, 1946년 3월 싱가포르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1959년, 민족주의의 성정에 힘입어 자치정부가 수립되고 싱가포르 최초의 총선이 열렸으며, 인민행동당(PAP)이 다수 의석인 43석을 차지하고, 리관유(Lee Kuan Yew)가 최초의 싱가포르 총리가 되었다.

1961년, 싱가포르는 말레이반도에 병합되었고 말레이반도-사라왁-북보르네오 연방과의 합병을 거쳐 1963년 말레이시아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합병의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1965년 8월 9일,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서 분리된 자주독립 민주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그 해 12월 22일, 마침내 싱가포르는 공화국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 □ 한국과의 관계

우리나라가 1970년 설치하였던 통상대표부가 1972년 총영사관으로 승격되고, 1975년 8월 8일 대사관이 개설됨으로써 정식 외교관계가 양국 간에 수립되었으며, 2007년 현재 상주공관이 개설되어 있다.

양국은 1967년 5월 무역 협정을 체결한 이래, 1972년 2월 항공협정, 1979년 11월 이중과세방지 협정, 1981년 5월 항공 협정, 1982년 10월 사증면제협정(무비자), 1988년 1월 해상운송 협정, 1995년 8월 예술문화체육 협력에 관한 협정, 1997년 6월 스포츠교류 협정, 2000년 11월 한.싱가포르 중소기업협력 약정 및 표준협력 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한.싱가포르연례각료회담이 통상장관회담의 성격을 띠고 열리며, 또한 한.싱가포르가포르민간경제협력위원회가 결성되어 양국 간 민간경제 협력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큰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시장이다. 싱가포르에 우리나라의 건설업체가 처음진출한 것은 1972년 2월로, 싱가포르 건설공사에 최초로 진출한 업체는 신한기공 건설로서 1972년 2월에 싱가포르 정유공장 건설공사를 198만 달러에 수주하였다. 그 뒤 대림산업, 쌍용건설, 경남기업, 신화건설 등이 잇따라 진출하였고, 1980년대 이후에는 현대건설과 삼화기업 등이 진출하게 되었다.

1980년 이후에는 한국업체들의 대형공사수주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는데, 특히 쌍용건설과 현대건설은 싱가포르 상징적인 건물이 되고 있으며, 현대건설이 수주하여 시공한 마리나센터 건설공사, 싱가포르 플라우테콩섬 매립공사, 창이공항 건설공사 등도 싱가포르의 명소를 만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III. 출장후기

#### □ 싱가포르 의회

- 방문일시 : 2022.12.15.(목) 10:00~11:30
- 제도 및 구성 : 단원제(총 101명)
  - 직선 의원 : 21세 이상 유권자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임기 5년의 국회의원
  - 무선거구의원 : 총선에서 패하였으나 당선된 것으로 간주되는 야당 소속 의원
    - ※ 무선거구 의원(최대 3명) : 야당이 총선에서 9석 미만의 의석을 획득하는 경우, 낙선한 야당 출마자 중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후보를 의원으로 추천
  - 지명 국회의원 :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2년 6개월의 무소속 의원(현 9석)
    - ※ 지명 국회의원 :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통령이 지명하며, 2년 6개월 임기로, 예산안·대통령 불신임안 등 중요 법안에 대한 투표권 미보유
- 선거구
  - 싱가포르의 선거구는 의원 3인 이상을 선출하는 집단선거구와 1인을 선출하는 단독선거구로 구분
  - 집단선거구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동일 정당에서 1개 GRC 선출의원수(3~5명)와 동일한 수의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제한
- 의회기능 : 법률안·예산안 심의, 의결 및 주요 국정 논의
  - 법률안 심의를 통한 입법권 행사· 법이 제정되기 전, 행정부를 대표하는 관련 장관이 법안을의회에 제출
  - 제출된 법안은 의회에서 3차례의 검토를 거치며, 대통령 승인 획득 후 법률로 제정
  - 매 회기 개최 시 1.5시간을 질의 시간으로 할애하여, 의원들이 관련 행정부(장관)에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통한 주요 국정 현안 점검
  - 예산안 심의·의결· 행정부로 하여금 연간 예산에 대해 의회에서 승인

- 특 징

- 행정 각 부의 장관, 국무장관, 정무차관 등 정무직 고위 공무원으로 임명된 국회의원 외의 일반 의원은 일반 직업 겸직 가능

- 무선거구 및 지명 국회의원 제도 운영

- 현 국회의장 : 탄 추안 진(TAN Chuan-Jin)

- 상임위원회(7개)

- 특권위원회 : 의회의 특권 위반에 대한 민원 사항 조사

- 선출위원회 : 각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배정 담당

- 예산위원회 : 정부의 예산 심의 및 평가보고서 작성

- 결산위원회 : 정부의 결산보고서에 대한 심의

- 의회위원회 : 의원들의 편익 관련 사항 담당

- 청원위원회 : 의회에 접수된 청원서 심의

- 의사규칙위원회 : 의회의 의사 규칙 심의 및 개정안 건의

- 정부국회위원회(Government Parliament Committee)(12개)

- 여당 의원으로 구성된 정부국회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안 및 행정 각부의 활동 점검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의 통로로 활용

- 사회가족개발, 국방외교, 교육, 재무통상산업, 보건, 내무법무, 정보통신, 인력, 환경수자원, 교통, 문화공동체청소년, 국가개발 등



싱가포르의회 전경



싱가포르의회

## 《 시사점 및 방문 후기 》

- 싱가포르 의회제도는 인민행동당이 절대의석(90%)을 차지하고 있고,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우리나라에 비하여 비민주적으로 보이나, 의원들의 청렴성과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수 십년간 국민의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직시해 볼 때, 정파주의 및 지역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우리 청양군의회 의원들도 청렴과 지속적인 자기능력 배양을 바탕으로 청양군 발전과 군민복지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군 의원으로 거듭 나아가겠다.

### □ 내셔널갤러리 싱가포르(싱가포르 국립미술관)

- 방문일시 : 2022.12.15.(목) 14:00~16:00
- 주요현황
  - 싱가포르의 국립미술관은 2015년 11월 24일 개관하였으며, 건축 총면적 64,000㎡ 규모로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19세기 이후 동남아시아의 근현대 미술 작품 8,000여 점을 소장 및 전시함
  - 미술관은 지하 1개 층, 지상 6개 층을 갖추고 있으며 전시실은 지하 1층과 지상 2~5층에 위치하고 있음
  - 상설전시실은 크게 DBS싱가포르 갤러리와 UOB동남아시아 갤러리의 2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싱가포르 주요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각국의 현대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 전시시설 외에 교육활동실, 음식점, 바, 카페, 라운지, 기념품 상점 등이 운영되고 있음



내셔널갤러리 싱가포르 전경



내셔널갤러리 싱가포르 내부

### 《 시사점 및 방문 후기 》

- 싱가포르 국립미술관은 싱가포르의 문화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단순한 전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싱가포르의 문화 예술계에 견인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아시아 문화 및 예술 교류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특히, 미술 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품에 대한 정보, 예술사, 작가의 생애 등 작품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가이드 오디오 등은 다양한 교육적인 측면을 제공하고 있다.
- 우리군도 문화 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내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지역 내의 예술가와 협업하여 창작활동을 증대시켜 지역의 예술적 창의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 가든스 바이 더 베이

- 방문일시 : 2022.12.15.(목) 17:00~19:00
- 주요현황
-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초대형 공원으로 시내에서 도보로 단 5분

거리인 마리나 베이(Marina Bay) 지역에 101만 평방미터 넓이로 펼쳐져 있으며, 25만 가지가 넘는 희귀식물의 서식지로서 전체 공원은 베이 사우스(Bay South), 베이 이스트(Bay East),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베이 센트럴(Bay Central), 3곳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가장 큰 해안 정원인 베이 사우스(Bay South)에는 미래에서 온 듯한 모습의 수퍼트리(Supertrees)가 있는데 이는 최고 16층 높이의 수직 정원으로써 전체 경관에 놀랍고 초현실적인 느낌을 주며, 이 나무들은 공원의 온실에서 필요한 빗물을 모으고, 태양에너지를 생성하며, 환기 장치 역할을 한다.
- 클라우드 포리스트(Cloud Forest)와 플라워 돔(Flower Dome)이 있는 온실(The Conservatories)은 열대지방의 열기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시설이다. 플라워 돔은 지중해 지역 및 남아프리카, 그리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유럽 일부지역과 같은 반건조 아열대 지역에 나타나는 시원하고 건조한 기후를 재현하며, 클라우드 포리스트는 해발 1,000미터에서 3,500미터 사이의 열대 산악지역, 즉, 말레이시아 사바 주의 키나발루 산(Mt Kinabalu)과 남미의 고산지대 등에서 볼 수 있는 시원하고 습한 기후를 재현한다.
- 베이 이스트(Bay East)에는 예쁜 파빌리온, 푸른 잔디, 열대 야자수 및 온갖 종류의 야생화들이 독특하게 섞여 있다.



가든스 바이더 베이(온실)



가든스 바이더 베이(슈퍼트리)

## 《 시사점 및 방문 후기 》

-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세계 최대규모의 거대 식물원으로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 실내·외 조경과 뛰어난 경관 조명은 전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유인 요소이며, 식물원 컨셉에 맞는 특색있는 다양한 기념품(화초, 씨앗, 관광상품)등은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끈다.
- 향후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칠갑산을 중심으로 한 3대 관광권역 개발사업, 청남면 동강리 일원에 국가정원 조성 시 인공물과 자연의 조화, 청양의 특색 있는 기념품, 야간조명 등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참고하여 우리 청양을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

### □ 주룽 새 공원

- 방문일시 : 2022.12.16.(금) 09:30~13:00
- 주요현황
  - 주룽새공원은 1971년에 개장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류 사육장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줌.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은 약 20만m<sup>2</sup>의 면적에 400종 이상의 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 공원은 여러 개의 구역 앵무새, 펭귄, 열대 지방의 새, 야행성 새 등으로 나뉘어 있어 관람객 각자의 취향에 맞게 구경 및 체험을 할 수 있다.
  - 새들은 날아다니는 동물이라는 생각을 아예 잊게 만들어 줄만큼 펠리칸, 백조 등이 열린 공간에서 생활하고, 새장을 크게 만들어서 그 안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새들에게 직접 모이를 줄 수 있는 환경(개방형 새장)을 조성 하고 있다.

- 원형극장에서 펼쳐지는 플라밍고, 마코, 무소새와 앵무새들의 쇼는 주룽새 공원만의 특색 있는 볼거리로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많은 인기를 받고 있다.
- 단순한 관람 뿐만 아니라 새 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식사를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 가능하며 ‘펭귄퍼레이드’ 구역은 남극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였고, 대부분의 사육장 또한 새들의 식생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아울러, 새공원의 전경을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파노레일’를 타면 공원 전체를 편하게 둘러볼 수 있다.

### 《 시사점 및 방문 후기 》

- 주룽새공원은 매우 깨끗하게 잘 정돈된 동물원으로 새들의 생활환경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어놓았으며 개방형 구조로 관람객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 특히, 다른 동물원과 차별화 전략으로 사육장을 새들의 서식지 그대로를 재현함으로써 관람객들은 현장감을 느낄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 아울러 공원내에는 트램(파노레일)을 운행하여 공원 모든 지역을 다니며 다채로운 광경을 볼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과 관광이 공존할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 자연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금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며, 향후 칠갑산을 중심으로 한 3대 관광권역 개발 시 이러한 점을 벤치마킹하여 관광객 유치 및 청양군 이미지 향상을 기대한다.



주룽새공원 공연



주룽새공원(파노레일)

## □ 디스커버리센터(SDC)

- 방문일시 : 2022.12.16.(금) 14:30~18:00
- 주요현황
  - 디스커버리센터는 싱가포르 국방부의 '에듀테인먼트(교육+오락)'로 싱가포르의 역사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대화형 박물관이다.
  - 1996년 싱가포르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에듀테인먼트 센터로 공식 개관하였으며, 2019년 센터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체험 시설을 만들어 놓았다.
  - 스마트 빌딩 운영 및 시스템으로 건물 에너지 소비의 최소 40% 이상을 태양광 발전 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건물 내 스마트 IOT 센서, AI 기반 제어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제로 에너지 실천)을 노력하고 있다.
  - 아울러, 싱가포르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 및 시설은 교육과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가능하여 즐기면서 교육적 학습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센터 전경



디스커버리센터 내부

### 《 시사점 및 방문 후기 》

- 디스커버리센터는 기존 박물관 형식의 일방적인 관람이 아닌 체험형 박물관으로써 에듀테인먼트(교육+오락)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끈다.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공간디자인은 관람객에게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싱가포르가 지향하는 미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 우리 청양군도 백제문화체험박물관이나 목재체험문화자연사체험관에 에듀테인먼트(교육+오락) 시설을 가미한다면 청양군 이미지 제고는 물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 도시개발국(URA) 시티 갤러리

- 방문일시 : 2022.12.18.(토) 10:00~12:00
- 주요현황
  - 싱가포르의 도시재개발국(URA)은 싱가포르의 중장기적인 도시의 비전을 이끌어내고 도시계획 방향을 구상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직이다.
  - URA 시티 갤러리는 도시재개발국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3층에 걸쳐 10개가 넘는 테마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 50개 이상의 시청각 전시 및 양방향 전시를 통해 싱가포르의 도시개발 및 재생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
  - 싱가포르는 50년을 내다보는 초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경제상황이나 환경 변화에 맞춰 수정된다. 10년 단위의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다시 5년 마다 상황에 맞춰 세부 지침을 만들어 일관성 있는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 특히, 싱가포르 시티갤러리에서는 도시계획, 도시모형,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 및 정보를 공개하여 일반인들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URA시티갤러리 내부



URA시티갤러리 내부

## 《 시사점 및 방문 후기 》

- 도시개발국(URA) 시티 갤러리는 싱가포르의 도시 개발 역사와 결과물을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며 도시계획과 발전에 대한 열정과 결단력, 국민의 협력을 느낄 수 있었다.
- 특히 도시개발 과정에서 많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시도들이 있었고, 그 결과 인공섬, 고속도로 아래 수중터널, 옥상정원 등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금의 싱가포르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 아울러 환경 문제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
- 도시재생은 군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할 때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 행정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공유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 청양군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건설적이고 주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하며 갈등과 문제 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IV. 출장을 마치며

- 우리군의회의는 지난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5일간 싱가포르 공무국의 출장을 다녀왔다. 청양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우수 사례 벤치마킹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취지로 시행된 이번 출장은 체류형 관광 자원 및 서비스 행태, 도시재생 사례 등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청양군의 발전된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특히,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서 본 슈퍼트리는 아주 인상적이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싱가포르의 미래 비전 중 하나인 공원 속 도시의 핵심 사업으로 대규모 열대정원 컨셉으로 구현해 놓았다. 그 안에 슈퍼트리의 높이는 25~50m의 높이의 인공구조물로서 열대 덩굴, 착생식물 등을 배치하여 랜드마크로 기능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아울러 야간 조명은 낮과 다른 경관과 전망을 제공하여 관람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현재 청양군은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칠갑산을 중심으로 한 3대 관광권역 개발사업, 청남면 동강리 일원에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원 조성시 자연 경관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인공과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랜드마크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느낀다.
- 아울러, 싱가포르는 도시 전체가 정원이라 불릴만큼 도시 곳곳에 공원과 건축물 내 녹지면적이 많다. 스카이라이즈라는 정책으로 건물옥상이나 외벽에 식생하기 위한 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와 기후환경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기후변화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는 것도 청양군의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끝으로 선진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었던 이번 국외공무출장에 대해 깊은 만족과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 어떤 이유로 싱가포르가 세계 유망 기업들이 지역 본사를 두고 다양한 국제기관들이 집결하는 비즈니스

허브가 되었는지, 해마다 2,000만명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엄격한 법집행, 깨끗한 도시환경, 자연과 인공이 결합한 관광자원 등이 결합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군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청양군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